

제 4 회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해법, 그린 뉴딜: 현황과 과제

—

윤순진 교수

환경대학원

제 4 회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움
**코로나 팬데믹: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2020년 10월 7일(수)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113호 (SK홀)
 | 주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프로그램	사회 이수형 행정대학원 교무부원장
15:00-15:10	개회식 및 내빈소개 임도빈 행정대학원 원장
15:10-15:15	축사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15:15-15:30	단체사진 촬영
15:30-15:35	휴식
15:35-16:00	발표 1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일자리 이수형 교수 오세정대학원
16:00-16:25	발표 2 코로나 팬데믹과 새로운 '건강재정'의 필요성 김창열 교수 오세정대학원
16:25-16:50	발표 3 COVID-19 팬데믹이 바꾼 신약의 임상개발 패러다임 이형기 교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6:50-17:00	휴식
17:00-17:25	발표 4 팬데믹 위기와 정부의 대응 홍준형 교수 오세정대학원
17:25-17:50	발표 5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해법, 그린 뉴딜: 현황과 과제 윤순진 교수 환경대학원
18:00-19:00	전문대학원 교류회 57-1동 1층 리운지

| 온라인 중계 | 행사시간에 <https://snu.webex.com/meet/aicgspa> 로 접속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해법, 그린뉴딜: 현황과 과제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codmeo@snu.ac.kr

제 4 회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움
**코로나 팬데믹: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2020년 10월 7일(수)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113호 (SK홀)
 | 주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프로그램	사회 이수형 행정대학원 교무부원장
15:00-15:10	개회식 및 내빈소개 임도빈 행정대학원 원장
15:10-15:15	축사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15:15-15:30	단체사진 촬영
15:30-15:35	휴식
15:35-16:00	발표 1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일자리 이수형 교수 오세정대학원
16:00-16:25	발표 2 코로나 팬데믹과 새로운 '건강재정'의 필요성 김창열 교수 오세정대학원
16:25-16:50	발표 3 COVID-19 팬데믹이 바꾼 신약의 임상개발 패러다임 이형기 교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6:50-17:00	휴식
17:00-17:25	발표 4 팬데믹 위기와 정부의 대응 홍준형 교수 오세정대학원
17:25-17:50	발표 5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해법, 그린 뉴딜: 현황과 과제 윤순진 교수 환경대학원
18:00-19:00	전문대학원 교류회 57-1동 1층 리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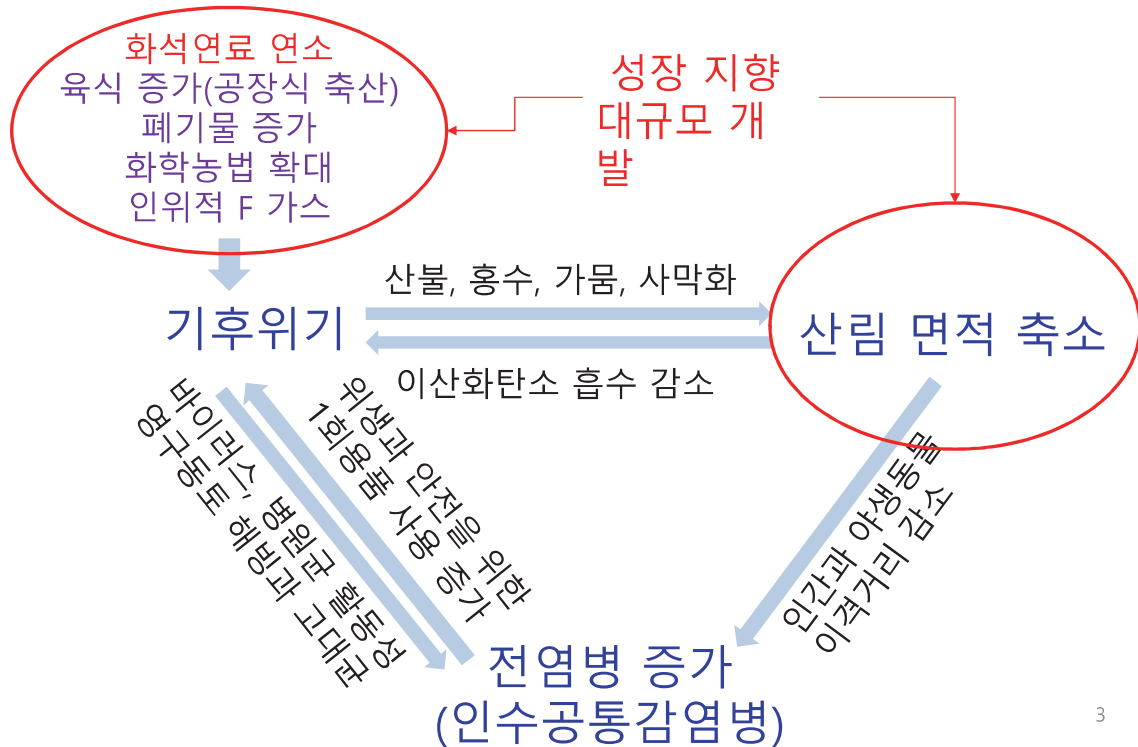
| 온라인 중계 | 행사시간에 <https://snu.webex.com/meet/aicgspa> 로 접속 가능합니다.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2. 그린 뉴딜의 개념과 내용
3. K-그린 뉴딜의 현재
4. 풀어야 할 쟁점들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기후위기, 숲, 인수공통감염병의 상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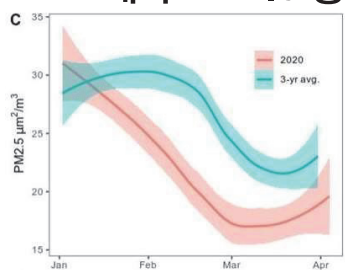


3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코로나19의 환경 역설: 미세먼지와 온실기체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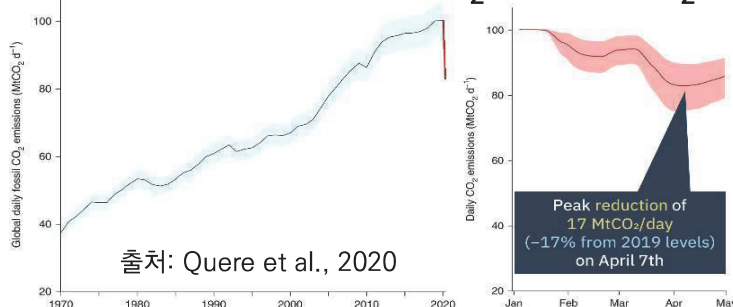
27개국 PM2.5 농도 변화(좌는 평균)



서울의 PM2.5 농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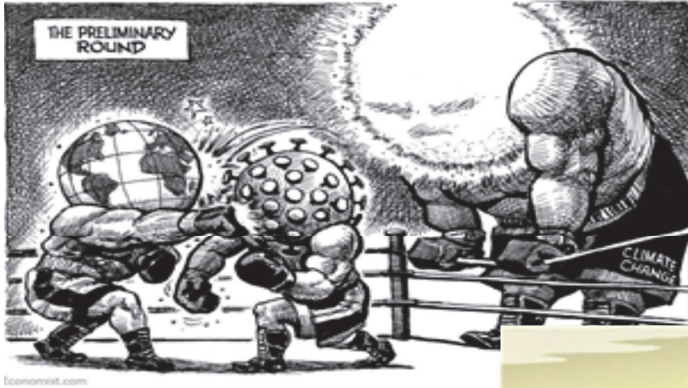
세계 전체 연료 기인 CO₂ 배출(MtCO₂/일)



- 2020년 4월 7일까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세계 총 연료 기인 일별 CO₂ 배출량 17% 감소
- 2020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부 규제가 유지된다면 -7% 감소 예상: 이는 1.5°C 온도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매해 필요한 감소율과 유사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파급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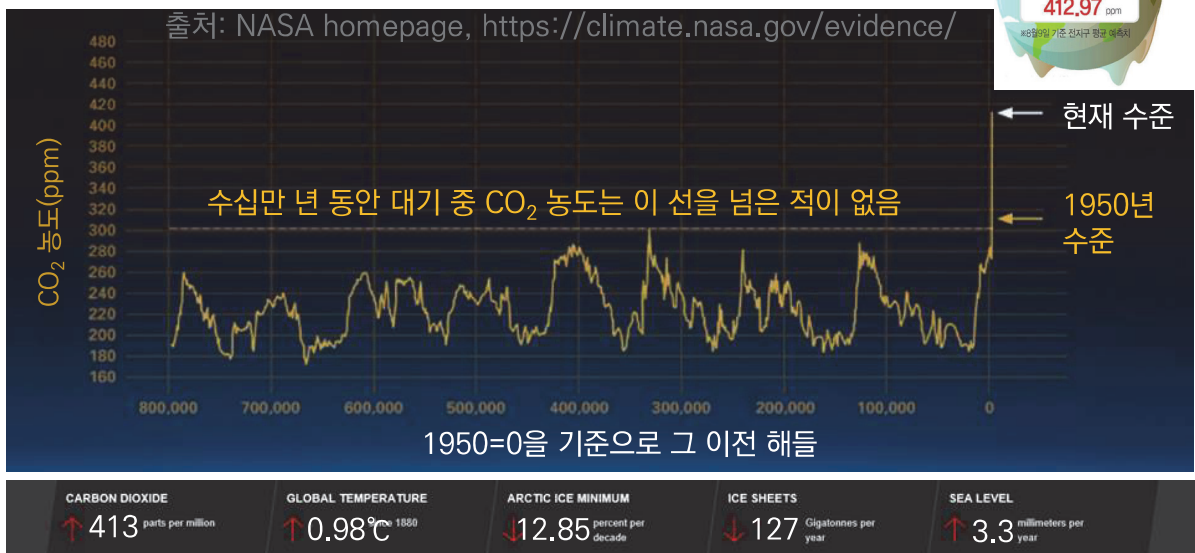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Economist(20년 4월)

- Grame Mackay의 삽화 (2020년 3월)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코로나19 이후 그린 뉴딜의 등장 배경

■ 급격하고도 지속적인 CO₂ 배출 증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기후체계의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명백하다.”
- 미 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2020년 4월 육지와 바다 표면 온도는 1880~1900년 평균 기온보다 약 1.24°C 상승한 상태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 코로나19 이후 해외 경제 회복 전략 제안들



英 칼럼니스트(기디언)
Owen Jones

“이것은 이미 대규모 살생을 초래했고, 수백만 명 이상을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전 세계적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19가 아닌 기후위기입니다.”

“현명한 정부가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코로나19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코로나19와 달리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백신을 알고 있다”



유럽태양광산업협회
대표 Walburga Hemetsberger

“태양광은 비용이 적은 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기술보급이 쉽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복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독일 환경부 장관
Svenja Schulze



노르웨이 과학기술대(NTNU)
정치학자 Torbjørn Knutsen

“코로나19는 전반적인 에너지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며, 석유·가스 산업 약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기회 있을 것”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Fatih Bi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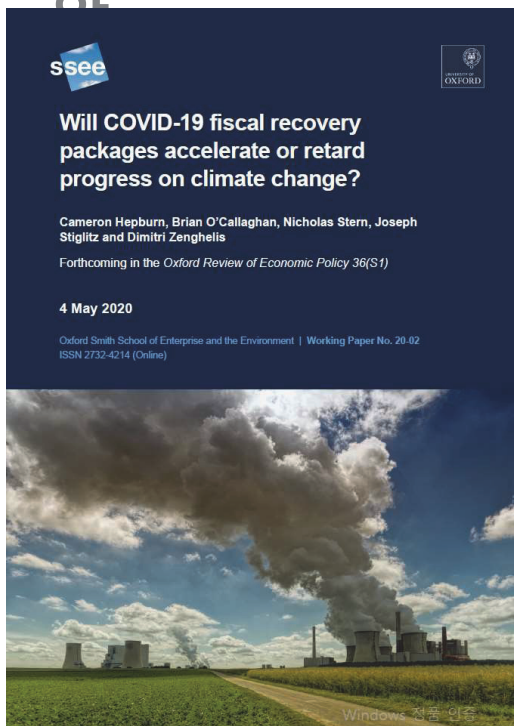


英 칼럼니스트(로이터)
Clyde Russell

7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 스티글리츠(Stiglitz)와 스턴(Stern) 등의 제



- 저자들은 재정 회복 패키지가 화석연료 집약적인 현 경제 체계 연장할 수도,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음
- 코로나19 위기가 기후위기 대응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코로나 이후 경제 부양과 기후위기 극복 동시 해결을 위한 5대 투자부문
 - 청정에너지 인프라
 - 에너지 효율 향상 건물 개보수
 - 교육과 훈련: 탈탄소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과 단기 코로나 실업
 - 생태계 회복탄성과 소생을 위한 자연자본
 - 청정 R&D

8

■ 코로나19 이후 그린 뉴딜 등장, 왜?

●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유사성과 연결성

- 발생 원인의 유사성: 성장지향적 대규모 개발, 숲의 파괴
- 발생과 영향의 유사성: 지구적 규모,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초래
- 속성의 유사성: 강력한 관성(momentum)과 원인-결과의 시간 지체, 해결 비용보다 적은 예방 비용, 일자리 영향, 경제에 미치는 재난적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물학적 속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으로 불평등 심화
- 기후 위기와 감염병 발생의 상호 연계와 상승적 강화
-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이며 전반적임.
- COVID-19 위기가 일상생활과 업무체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기후위기가 미칠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 모색하는 데 통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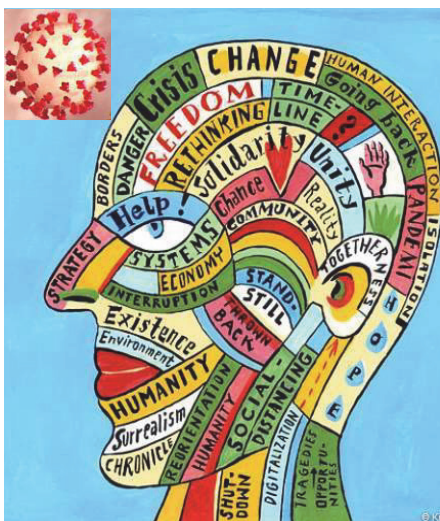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의 예행 연습 수준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파리협정 채택/발표와 IPCC 특별보고서: 경기 회복에 있어서 기후 위기 반드시 고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 기후 위기 + 불평등 위기, 3중 위기 '동시 극복' 방안으로 그린 뉴딜 등장**

9

■ 코로나19가 준 또 다른 교훈



출처: Goethe Institute Korea

- 3T(Test, Trace, Treat)에 기반한 K-방역의 성공과 확산: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가치, 한국의 재발견!
-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우십(followship)의 조화: 정부 신뢰 향상과 시민 실천의 중요성
- 연대와 나눔, 포용 가치 확산
- 돌봄 노동과 배달 노동 등 필수 노동과 공공의료의 중요성
- **혁신**의 중요성: 진단키트 사용의 빠른 승인 과 개발,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 **단절과 파격**의 가능성!: 위기는 위험과 기회! 좋은 부작용(good side-effect)

10

제 4 회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움

코로나 팬데믹: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2020년 10월 7일(수)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113호 (SK홀)
| 주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프로그램	시회 이수영 행정대학원 교무부원장
15:00-15:10	개회식 및 내빈소개 임도빈 행정대학원 원장
15:10-15:15	축사 오세창 서울대학교 총장
15:15-15:30	단체사진 촬영
15:30-15:35	휴식
15:35-16:00	발표 1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일자리 이수형 교수 경제대학원
16:00-16:25	발표 2 코로나 팬데믹과 새로운 '건강재검'의 필요성 김창엽 교수 보건대학원
16:25-16:50	발표 3 COVID-19 팬데믹이 파곤 신약의 임상개발 패러다임 이형기 교수 중합과학연구소대학원
16:50-17:00	휴식
17:00-17:25	발표 4 팬데믹 위기와 정부의 대응 홍준형 교수 행정대학원
17:25-17:50	발표 5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예방, 그린 뉴딜: 현황과 과제 윤순진 교수 행정대학원
18:00-19:00	전문대학원 교류회 57-1동 1층 리운지

| 온라인 중계 | 행사시간에 <https://snu.webex.com/meet/aicgspa> 로 접속 가능합니다.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2. 그린 뉴딜의 개념과 내용
3. K-그린 뉴딜의 현재
4. 풀어야 할 쟁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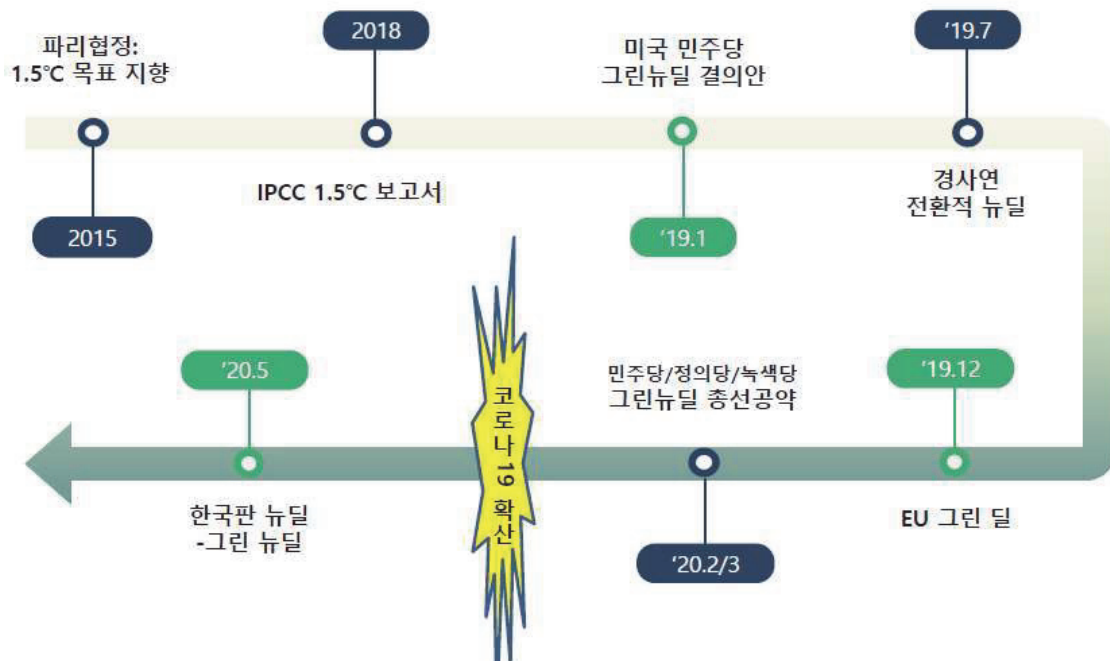
2, 그린 뉴딜의 개념과 내용

■ 역사상 뉴딜의 개념과 의의

-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
-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새로운 자유(New Freedom)와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공정한 협약(Square Deal)의 결합: **새로운 협약(New Deal)**
- 연방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 1차 뉴딜: 경제 단기 회복: 긴급 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 2차 뉴딜: 사회보장 안정망 확충
- 단순 경제회복을 넘어 경제위기 초래한 시스템 개혁, 위기 사전 예방



■ 그린 뉴딜 논의의 흐름



출처: 이창훈, 2020, "그린 뉴딜 논의 동향 및 추진 방향"

13

■ EU 그린 딜 발표(2019년 12월 1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The European Green Deal 발표 (19.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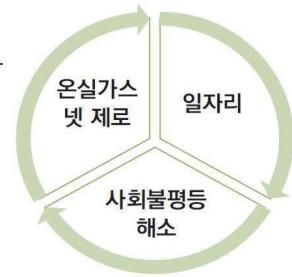
- 2050 탄소중립 목표 제시
- 유럽기후법 제안
- 탄소국경세 제안
- 생물다양성 · 순환경제 등 분야별 세부 전략 마련

출처: 환경부, 2020, "기후위기시대의 그린뉴딜"

- 유럽 그린 딜은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new growth strategy)
- 목표: 2030 감축목표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강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65%, 1차 에너지의 24%), 2050 탄소중립 달성

14

■ 미국 그린 뉴딜 결의안의 핵심 내용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위원

「그린 뉴딜 결의안 하원의결(19.03)」

전력수요 100% 재생에너지화

공정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 일자리 창출

※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후보) : 1.7조 달러 투자 공약(Clean Energy Revolution & Environmental Justice)
※ 뉴욕주 : 2050 탄소중립 법제화

출처: 환경부, 2020, “기후위기시대의 그린뉴딜”

9

● 현 상태: 그린 뉴딜 미실현(대선 결과에 연동)

■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추진 주체

- 행정부도 중요하지만 의회(국회)의 역할 중요
- 독일: 단계적 탈원전 결정에서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탈석탄 결정을 위해 ‘경제성장, 구조변화 및 고용 위원회,’ 일명 ‘탈석탄위원회’ 운영

● 추진이 가능한 조건들

- 기후 위기에 대한 높은 시민 인식과 지지, 사회적 합의
- 2019년 EU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의 선전: 9.19% 득표로 67석 차지, 4위 정당
- 독일: 연방 16개 중 12개 주에서 녹색당이 사민당이나 기민련과 함께 연정

● 추진 체계와 방식, 내용

- 에너지 전환이 핵심 + 산업, 교통, 농업, 폐기물, 생태계 등 대상 영역 포괄적
- 법률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시
- 분야별 명확한 목표
- 10년 단위 로드맵 수립과 이행 평가, 환류
- 녹색 금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원 마련
- 불피해(Do no Harm) 원칙 준수

16

제 4 회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움

코로나 팬데믹: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2020년 10월 7일(수)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113호 (SK홀)
| 주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프로그램	시회 이수영 행정대학원 교무부부장
15:00-15:10	개회식 및 내빈소개 임도빈 행정대학원 원장
15:10-15:15	축사 오세창 서울대학교 총장
15:15-15:30	단체사진 촬영
15:30-15:35	휴식
15:35-16:00	발표 1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일자리 이수형 교수 (국제대학원)
16:00-16:25	발표 2 코로나 팬데믹과 새로운 '건강재검'의 필요성 김창엽 교수 (보건대학원)
16:25-16:50	발표 3 COVID-19 팬데믹이 파곤 심야의 임상개발 패러다임 이형기 교수 (중합대학원)
16:50-17:00	휴식
17:00-17:25	발표 4 팬데믹 위기와 정부의 대응 홍준형 교수 (행정대학원)
17:25-17:50	발표 5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해법, 그린 뉴딜: 현황과 과제 윤순진 교수 (행정대학원)
18:00-19:00	전문대학원 교류회

57-1동 1층 리운지

| 온라인 중계 | 행사시간에 <https://snu.webex.com/meet/aicgsa> 로 접속 가능합니다.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2. 그린 뉴딜의 개념과 내용
3. K-그린 뉴딜의 현재
4. 풀어야 할 쟁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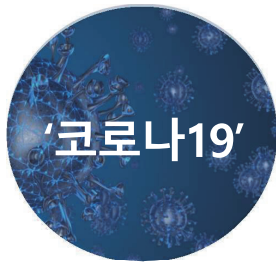
3. K-그린 뉴딜의 현재

■ 한국 그린 뉴딜 논의의 등장과 흐름



- 2020년 5월 12일 국무회의: 문 대통령,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합동 보고 지시
- 2020년 5월 20일 4개 부처 사업 합동 서면 보고 후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 결정: 문 대통령,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라.”
- 2020년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예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그린 뉴딜의 개념과 목표



경제위기

- 경제·사회붕괴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침체
- '20년도 세계 경제성장을 마이너스 예상

기후·생태위기

- 인간활동에 따른 생태위기 경각심 확대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 지속

그린 뉴딜



저탄소·친환경 전환



과감한 투자 및 개혁

[기후·생태위기와 경제위기 동시 극복]

출처: 환경부, 2020, “기후위기시대의 그린뉴딜” 재구성

■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밑그림(6월 1일 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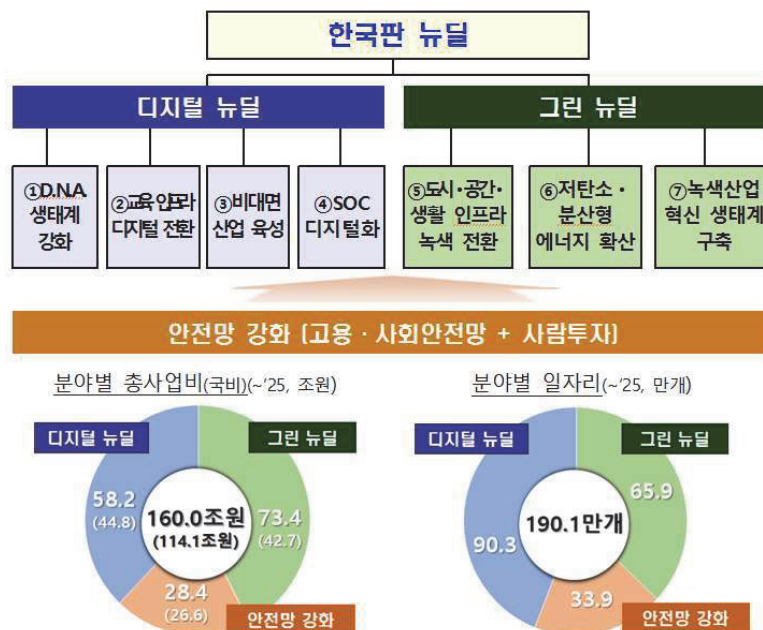
재정투자	일자리
디지털 뉴딜 (13.4조원·33만개)	그린 뉴딜 (12.9조원·13.3만개)
1 D.N.A. 생태계 강화 (6.4조원·22.2만개)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5.8조원·8.9만개)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8조원·1.5만개)	2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7조원·1.1만개)
3 비대면 산업 육성 (1.4조원·2.8만개)	3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5.4조원·3.3만개)
4 SOC 디지털화 (4.8조원·6.5만개)	
고용안전망 강화	
1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9조원)	2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2.7조원)
3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0.5조원)	4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4조원)
5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0.5조원·9.2만개)	*총 5조 투자, 9.2만 개 일자리

■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밑그림(7월 14일 안)



21

■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밑그림(7월 14일 안)



➔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및 녹색산업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그린뉴딜사업으로 온실가스 1,230만 톤 감축)

22

제 4 회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움

코로나 팬데믹: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2020년 10월 7일(수)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113호 (SK홀)
| 주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프로그램	시회 이수형 행정대학원 교무부원장
15:00-15:10	개회식 및 내빈소개 임도빈 행정대학원 원장
15:10-15:15	축사 오세창 서울대학교 총장
15:15-15:30	단체사진 촬영
15:30-15:35	휴식
15:35-16:00	발표 1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일자리 이수형 교수 국립대학원
16:00-16:25	발표 2 코로나 팬데믹과 새로운 '건강재정'의 필요성 김창엽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16:25-16:50	발표 3 COVID-19 팬데믹이 파고 싼야의 임상개발 패러다임 이형기 교수 중앙대학교
16:50-17:00	휴식
17:00-17:25	발표 4 팬데믹 위기와 정부의 대응 홍준형 교수 한양대학교
17:25-17:50	발표 5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해법, 그린 뉴딜: 현황과 과제 윤순진 교수 한양대학교
18:00-19:00	전문대학원 교류회 57-1동 1층 라운지

| 온라인 중계 | 행사시간에 <https://snu.webex.com/meet/aicgsa> 로 접속 가능합니다.



1. 왜 지금 그린 뉴딜인가?
2. 그린 뉴딜의 개념과 내용
3. K-그린 뉴딜의 현재
4. 풀어야 할 쟁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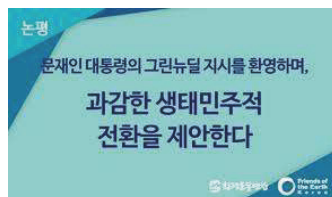
4. 풀어야 할 쟁점들

■ 그린 뉴딜 관련 비판과 제안



서울경제
[뒷북경제] '그린 뉴딜',
결국 문재인 판 '녹색성장'?

입력 2020-05-23 10:00:05 | 수정 2020-05-23 10:00:05 | 조영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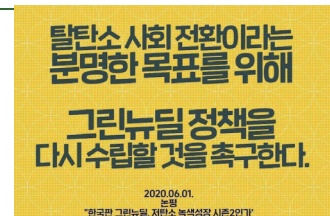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pression.com

"한국의 그린뉴딜에 '그린'이 있는가?"

27일 토론회서 "석탄 발전, 제주공항 전면 중단해야"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7:00:03 최종수정 2020.05.27. 17:01:06



정의당
정의당 원내부총장
(이원석 원내부총장)

경향신문

[오늘은 이런 경향]

76조 투자 한국판 뉴딜에 그린은 없다

김기범 기자 hojsak@kyunghyang.com

입력 : 2020.06.02 08:39 | 수정 : 2020.06.02 11:03

ECONOMYChosun

그린 뉴딜 'Why'를 넘어 'How' 고민해야

"우선순위, 고용보다 산업 전환...화석연료 미련 버려야"

349호 2020년 05월 25일

이투뉴스

HOME > 기획 > 인터뷰

"산업생태계 기반없는 그린뉴딜은 돈 나눠먹기"

윤 이상복 기자 | 윤승민 2020.06.05 15:45 | 댓글 0

[직접인터뷰] '유럽 그린딜 목적자' 김재민 해양대 초빙교수



■ 쟁점 하나, 그린 뉴딜의 정의와 목표

- 그린 뉴딜을 무엇으로 보는가?: 그린 뉴딜을 보는 시각 차이 존재
 - 녹색경기부양책?: 친환경산업에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신성장동력화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
 - 새로운 경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 : 1930년대 뉴딜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이룬 사회개혁이었던 것처럼 그린 뉴딜은 환경을 고려하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약
 - 후자가 바람직하며 추구해야 할 방향: 다만 실행 역량(조직, 예산 등)과 사회적 동의와 지지 필요
- 그린 뉴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린 뉴딜에 대한 시각 차와 연결
 -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VS. '기후위기 대응 + 일자리 창출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와 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
 - 기후 위기 대응 강화: 2050년 넷 제로 선언, 2030년 목표 상향 필요
 - 국회는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첫 결의안 채택, 2030년 목표 상향,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합의,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25

■ 쟁점 둘, 그린 뉴딜의 대상 영역과 범위

- 선택과 집중 VS. 포괄적 전환?
 -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세계 경제의 변화로 미루어 에너지 전환이 핵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이 전부일 수는 없기에 무엇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를 문제 발생: 우선순위와 비중 문제 발생
 - 해외사례: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며 다양한 범주 포함;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농식품정책, 전반적인 환경질 제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회복탄성(resilience) 유지 등
- 대상 영역과 범위를 둘러싼 쟁점
 - 무엇을 하겠다는 Positive list로 제시? 무엇을 안된다는 Negative list도 제시?
 - 탈석탄 시기와 로드맵
 - 탈석탄 금융 선언과 이행: EU는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 심각한 불피해(Do no harm) 원칙 채택
 - 시공간적 범위: 언제까지? 국내정책만이 아니라 수출산업도 대상?
 - 재생에너지 설치를 둘러싼 녹록 갈등 해소 필요: 기후 위기 극복 중심

26

4. 풀어야 할 쟁점들

■ 쟁점 둘의 예시: 그린 뉴딜과 석탄화력발전

- 단계적 탈석탄 선언: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 포함 2022년까지 10기, 2034년까지 추가 20기 폐쇄
- 건설 중인 7기(7.3GW) 석탄화력발전소 계속 건설?
- 탈석탄의 공간적 범위: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투자의 적절성(탈석탄 투자는 윤리만이 아니라 좌초자산 가능성에 따른 경제성 문제)



4. 풀어야 할 쟁점들

■ 쟁점 셋,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 새로운 일자리로 고용 기회 증가하나 축소되거나 소멸될 회색 일자리 노동자 배려 필요: 교육과 재훈련 기회 제공, 고용의 연착륙 유도
 - 재교육, 재훈련이 어려운 고령 노동자(독일의 경우 만 58세)의 조기 퇴직과 연금 지급 방안
 - 노동자를 넘어 해당 산업과 해당 산업 입지 지역 대상 지원: EU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이나 독일의 탈석탄 지원금 같은 별도 재원 필요
 -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보상 안 검토 필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입지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를 위한 대안 필요
 -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공재정투자의 적정 규모는?
 -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에너지전환지원법 발의
 -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조기폐쇄나 건설 취소시 발전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 방침

4. 풀어야 할 쟁점들

■ 디지털 그린 특구 지정과 정의로운 전환, 지역 균형발전

자료: 에너지전환포럼
기자회견 자료
재구성



29

4. 풀어야 할 쟁점들

■ 쟁점 넷,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법, 제도, 조직

- 그린 뉴딜은 개별 사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 협약’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마련 필요
 - 그린뉴딜특별법, 기후대응기본법, 에너지전환기본법 등의 제정?
 -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의 통폐합 개정?

● 그린 뉴딜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

- 기존 거버넌스 기구의 사업별 활용? 또는 개편?: 녹색성장위원회, 국가 기후환경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기치	가파른 전환 10년 로드맵, 그린 뉴딜 경제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 실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넷제로 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	2050년 넷제로 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주요 정책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40% 2030년 전기자동차 100만대 200만 호 그린리모델링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100% 재생에너지, 대중교통공영제 불량등 잡는 3주력 소유금지 그린리모델링과 석탄 자금률 제고	석탄발전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금융’ 중점 RE100 전기차 수차 확대 지역에너지 전환센터 설립
불평등 완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에너지 복지
국제협력	한중일 공동 탄소가격 설정	남북 공동 그린뉴딜	PNK인프라 동맹에 슈퍼그리드
법 제도화	그린 뉴딜 특별법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기본법 기후비상특위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그린 뉴딜 기본법
재원	확대 재정, 녹색채권, 탄소세 부과, 그린뱅크	탄소세 도입 예산 감축 탄소배출기업 과세 소비세 증세	탄소세 도입 검토 환경개선특별회계 확충
예산 규모	GDP 1~3% 투자		

■ 쟁점 넷,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법, 제도, 조직

● 기존 관련 계획에 제시된 목표와의 정합성 제고

- 기존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 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의 목표 상향 필요, 제반 계획들의 통합과 재편?
- 기존 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와 미달성시 요인에 대한 검토와 환류

● 경제의 생태화, 생태의 경제화를 위한 시장 규칙의 정상화

- 전력시장 구조 개편, 전력요금체계와 에너지세제 개편 등
- 원가 연동제, 오염자 부담원칙(사회환경비용 지불)

● 기후 위기 대응의 주류화

- 전 부처 주요 정책, 계획, 사업 대상 기후영향평가, 기후예산제 도입
- 부처 통합형 복합민원처리 방식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둘러싼 규제갈등 해소와 신속한 행정 지원, 사업자 부담 완화
- 정부 주도 입지 계획 추진

31

■ 쟁점 다섯, 수립 과정과 참여자

● 그린 뉴딜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참여자 문제

- 그린 뉴딜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 재정투자정책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
- 지방정부와 시민,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필요
- 뉴딜 사업이 공공재정투자사업 위주이나 시민 또는 지역 주민 참여로 정부 투자와 국민 투자 병행 방식에 대한 모색 필요: (예)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역간 균형발전

- 화석일자리 의존 지역을 지역맞춤형 녹색일자리 산업으로 전환, 소요 자원 중앙정부 지원
- 6월 5일 전국 228개 중 225개 기초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참여율 99.1%):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들에 인센티브 부여(+전력자립률 기준 제시로 책임도 부여)



■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

●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은 진행형

- 회전계획(rolling plan)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가는 방식
- 2년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되 녹색경기부양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
- 뉴딜의 구제, 복원, 개혁이 그린 뉴딜에서도 적용될 필요: 뉴딜은 공공재정 투자정책에서 출발했으나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사회개혁 달성
- 탄소중립 목표년도 확실히 하지 않은 것은 국민여론 수렴 과정 중이기 때문
- 현재의 그린 뉴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대안 제시와 활발한 토론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함: 경제위기+기후위기+불평등위기의 동시 극복, 녹색국가로의 전환 목표

● 녹색뉴딜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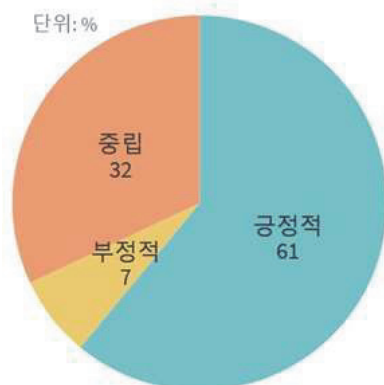
- 긴 시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요구로 갑작스럽게 결정
- 미국 역사 속 뉴딜 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한 조치로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서 폭넓은 방향으로 발전

33

5. 풀어야 할 쟁점들

■ 현재까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의견들

● 경기부양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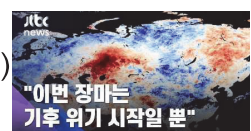
● 국회의 그린 뉴딜 법제화



설문조사: 그린피스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020년 4월 24일~28일에 19세 이상 1600명 대상 조사

● 2020년은 한국 시민의 기후위기 인식 전환의 원년: 기후위기의 실질적 체감

- 역대 1위를 기록한 6월 평균 기온(22.8℃)
- 54일의 역대 최장 장마 기간(6/24~8/16), 역대 2위 강수량(920mm)
- 1973년 이후 처음으로 7월 기온이 6월보다 낮은 기온 역전 현상



■ 그린 뉴딜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제안

- 명확한 비전과 목표 제시로 그린 뉴딜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미 공유, 공감대 확보 중요
- 단기적으로는 녹색경기부양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에 초점
- 2050년 넷 제로 명시 + 2030 목표 상향(현재 2017년 배출 대비 24.4% 감축): 법제화 필요
-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추진
-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필요: 에너지를 넘어 경제와 삶 전체의 탈탄소화 필요
-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 수립과 이행 점검
 - 현재의 제도 변경 없이 재정 투입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공공기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새만금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설비에 연결하는 전력망 구축, 영농형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국민 주주 운동(기본 소득 또는 연금 역할) 등
 - 개별 사업이 녹색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 설계 필요

35

감사합니다!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codmeo@snu.ac.kr

제 4 회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움

코로나 팬데믹: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2020년 10월 7일(수)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113호 (SK홀)
| 주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프로그램	사회 이수형 행정대학원 교수부원장
15:00-15:10	개회식 및 내빈소개 임도원 행정대학원 원장
15:10-15:15	축사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15:15-15:30	단체사진 촬영
15:30-15:35	휴식
15:35-16:00	발표 1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일자리 이수형 교수 국립한양대
16:00-16:25	발표 2 코로나 팬데믹과 새로운 '건강예감'의 필요성 김창엽 교수 포항공대
16:25-16:50	발표 3 COVID-19 팬데믹이 라온 신야의 일상개별 패러다임 이형기 교수 동원대학교
16:50-17:00	휴식
17:00-17:25	발표 4 팬데믹 위기와 정부의 대응 홍준형 교수 한양대
17:25-17:50	발표 5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해법, 그린 뉴딜: 윤희과 과제 윤순진 교수 한양대
18:00-19:00	전문대학원 교류회

57-1동 1층 라온지

| 온라인 중계 | 행사시간에 <https://snu.webex.com/meet/aicgspa> 로 접속 가능합니다.